

전남 신재생에너지 전용단지 '빨간불'

분양가 높아 기업들 입주 꺼려

1년동안 분양률 22.65% 그쳐

전남도가 지역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전남개발공사와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전용단지' 조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금융경색으로 시작된 경기침체에 높은 분양가로 인해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남도의회가 공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

가 대불산단 내 배후주거단지(35만 6736m²)의 일부(21만121.7m²)를 신재생에너지 전용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입주업체를 모집중이다. 분양률은 고작 22.65%(4만 7736m²)에 그치고 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주변 산단에 비해 높은 분양가(3.3m²당 52

만2000원)가 한몫을 한 것으로 전남도의회는 파악했다.

분양 가격의 경우 장흥 해당산단(38만원)을 비롯해 영광 대마산단(39만원)·신안 압해산단(45만원)·강진 성전산단(35만원)·나주 미래산단(50만원)에 비해 크게 높은 형편이다.

전남도의회 정환대 부의장은 "입주 대상 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로 제한하면서 부지 분양 규모(3만 3057m²이상)가 너무 큰 게 기업들의 외연을 받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중소 기업들이 입주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급기야 전남개발공사는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로까지 분양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 안팎에서는 자금력을 갖춘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가 많지 않은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도 이르고 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측은 "율이 분양이 저조할 경우 분양가 인하 및 부지 규모를 조기에 분할하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서남권 지역발전정책 토론회'가 17일 오후 영암군 호텔현대에서 열렸다.

〈전남도 제공〉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부지 내달 매각 공고

농업연수원 등 13곳

국토해양부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가 소속 또는 공공 기관의 종전 부지에 대한 매각공고를 다음달까지 낼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국가 소속기관으로는 우정사업정보센터(부지면적 2만9026m²·건물 1만9538m²)와 농업연수원(부지 1만399m²·건물 1만3935m²)이 이달내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매각공고를 낸다. 감정가는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경우 1793억2200만원, 농업연수원

은 598억9900만원이다.

공공기관인 한전KDN도 이달 온비드를 통해 매각공고를 낸다. 부지(108m²)·건물(242m²)의 감정가액은 6억2000만원이다.

국토부는 또 경기도 수원 농업연수원은 연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정보센터는 부지가 넓어 기업 전산센터 등으로 활용하기에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초까지 국가 소속 또는 공공기관 13곳의 종전 부지에 대한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전 철회해야"

광주시, 국토해양부에 건의서 제출

광주시가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에 통합한다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 이 같은 내용은 '통합 불가론'을 내세우면서도 지난 2007년 무안공항 개항 후 국제선을 무안공항에 이전시키는 등 정부 방침에 따랐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정부 및 전남도와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광주시는 17일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려는 정부계획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강운태 광주시장 명의의 건의서를 이날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건의서를 통해 ▲공항 이용객 편의성 ▲광주공항 이용객 추이 ▲무안공항 배후인구 미흡 ▲군공항 이전 시급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향 이전 시급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공항 국제선의 무안공항 이전을 강행해 이용자가 70%나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며 "국내 14개 지방공항 중 광주공항 이용객 4위인 광주공항을 폐지하려는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연간 국내선 이용객이 136만명인 광주공항을 국내선 이용객 2만명에 불과한 무안공항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사회통념과 보편적 상식에 어긋난다"며 "소음의 주원인인 군 공항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민항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서남권 동북아 해양관광·신산업 중심지 육성

정부 차원 지원 절실 '한목소리'

'서남권 지역발전정책 토론회' 13개 사업 대정부 건의

전남도가 서남권을 동북아 해양관광 및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17일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영암 현대호텔에서 개최한 '서남권 지역발전정책 토론회'에서 ▲F1·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동북아 관광·경제 중심지 조성 위한 기업도시 활성화 지원 ▲녹색성장 산업 기반 구축 및 영산강살리기 지원 ▲철도·공항 네트워크 연결 및 관광인프라 충진지원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을 대정부 건의서를 전달했다.

도는 우선, 여수세계박람회 내년

해 호남고속철 무안국제공항 경유 등도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서남권 지역발전정책 토론회'를 지역발전위원회에 전달하고 협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성의있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한승희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전남도의 요구사항을 정부 층에 전달하는 항구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지역현안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과 함께 1815만220m²(1조1570억19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여수(619만 5329m²·7094억3600만원), 보성(336만623m²·12억2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남도는 외국인 지분이 50% 넘어가는 법인 토지는 외국인 토지로 분류되면서 광양과 여수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민만평

- 김종우



광양항 배후 수송시설 오늘 준공식

김황식 국무총리 참석

광양항의 물류 인프라인 배후 수송시설이 착공 17년 만에 완비됐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오전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김황식(시진) 국무총리와 김희국 국토부 2차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우윤근 민주당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는다.

정부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국가 예산 1조1627억원을 들여 광양항의 배후 수송 시설로 도로 4개 노선 28.7km, 철도 2개 노선 9.6km를 건설했다.



행사에서는 김경수 대우건설 전무가 사업포장과 함께 대통령 표창(5명), 국무총리 표창(9명), 국토부 장관 표창(25명)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배후 수송 시설 준공으로 광양항이 남해고속도로, 경전선 등과 직접 연결돼 내륙 운송이 원활해지고 물류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지역 외국인 소유 땅 3795만m²

전국 두번째로 많아... 광주는 331만4000m²

국토해양부는 올해 3분기에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전분기보다 36만m²(0.16%)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은 3분기에 2분기와 비교해 11% 감소한 1192건, 226만m²의 토지를 취득하고, 4.6% 줄어든 461건, 190만m²를 처분했다. 이에 따라 9월 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지

난해 말보다 1.4% 늘어난 2억2160만m²로, 국토 면적(10만2100km²)의 0.2%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331만4000m²(5188억원)로 전분기와 비해 0.02% 증가했고 전남은 3795만4000m²(2조140억원)로 전분기 대비 0.45%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805만m²)에 이어 전남(3795만m²)이 가장 많았고 경

세종행정고시학원 : 광주점 361-8111
전대점 268-8111

공인중개사

전국최강 새롭고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위원과 50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2月 1日 주간반
야간반
현재 전과목 강의중(청강환영)

재직자 국비지원 선착순60명

합격률을 원하신다면 찬 수강료, 징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광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롭고수진을 선택하십시오!!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세종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점 361-8111 전대점 268-8111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그동안 남모르게 고민해오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화제다. 여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근의 영양침입입니다. 남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위축입니다. 원인이 다른면 제품도 달리지 않겠죠? 모근에 영양공급이 바르고 강아지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탈모뿐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며 배꼽아래 체모가 풍성해진다.

(통신판매신고증 제19-5301호)

대히트 오래~ 오래~

신상품 롱~링

남자의 발기능력을 자기 하기에도 달려 있습니다. 왜소하고 뻐르고, 힘이 없고 남성의 3대 고민은 오래~ 오래~ 롱~링으로 개선하자. 자동으로 흔들어 주고 떨어주며 롱링은 소프트하고 무게감이 없고 반영구적이며 위생적으로 탑월하여 여성으로부터도 호감을 받습니다. 생뇨병사 불뇨장생 책을 드립니다.



본 제품은 의료기기 아닙니다

02-2068-4142 010-3518-8995
02-2068-4143 010-3611-8272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못받을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

생각보다 좋은 비누 펑미인

펑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시에 피부를 열리게 하여 물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 주요성분